

백화점의 대변신... '만물상' 버리고 이젠 '전문관 시대'

롯데백

단일아이템 OIO 기획

현대백

천호점에 홈퍼니싱전문관

유명 브랜드로 즐지어서 소비자를 맞이했던 백화점의 내부가 변화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며 비교적 성장세가 주춤한 백화점이 집객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관'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백화점 전문관은 내부에 벽을 두고 단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고수하던 기존과 달리 카테고리별로 매장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최근 떠오르는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쇼핑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오프라인 점포만의 특장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트렌드 내세운 편집·전문관 확대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오프라인 점포의 특장점을 한껏 끌어올린 '전문관'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요가전문매장 전경.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20일 천호점 9층 전체를 홈퍼니싱 전문관으로 리뉴얼 오픈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같은 규모의 리빙관을 지난 1월 10층에 오픈, 이번 리뉴얼로 총 5300㎡ 규모의 전문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리빙관에는 각 상품군별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엄선한 새로운 콘셉트의 전문 매장이 들어섰다.

다이슨과 협업해 일반 제품 대비 10배 가량 비싼 핸드드라이어를 매장에 비치하고 헤어연출 시연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헤어숍 '에코자텔'과 체형에 맞는 기능성 베개를 맞춤 제작해주는 '로프티'가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리빙의 경우 상품의 고객이 직접 소재 및 크기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등 체험을 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에서

구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품군"이라며 "수준 높은 상품 연출과 매장 구성을 내세워 1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고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매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요가를 테마로 한 전문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수준 높은 요가 강좌 운영은 물론, 프리미엄 요가 용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숍과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토탈 요가 전문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9월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 부산 센텀시티점에 9300㎡ 규모에 달하는 생활전문관을 선보였다. 부산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부산 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로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고 신세계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브랜드력보다 제품력을 더 따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백화점의 전문관이 늘어나는 이유 또한 이러한 '가성비' 트렌드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일 아이템 매장도 등장

롯데백화점은 올해 봄·여름(SS) 정기 개편 시즌을 맞아해 단일 아이템에 집중한 매장 '원 아이템 온니(OIO)'를 기획했다. 다양한 상품을 모은 기존 전문관과 달리 '한 가지 아이템'만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남성 전용 캐시미어 매장 '캐시미어 하우스', 모나미 펜 전문 매장 '모나미 컨셉 스토어' 등을 선보였다.

향후에는 꽃 전문 매장과 골프와 전문 매장 등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상품 진열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덕후, 매니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동혁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한 상품에 집중하는 '원 아이템 온니(OIO)' 매장은 일반 편집 매장과는 다르게 단일 트렌드 아이템을 이슈화해서 매니아 층을 공략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백화점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신선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남북관계, 전례없는 기회 찾아올 것”

상의 '남북관계 컨퍼런스'

북 경제, 시장경제 요소 늘어

지나친 기대·의구심 자제해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지속됐던 대립에서 완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

에 공감했다. 그러나 다양한 온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경제가 변화해 상당 부분 개방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경제는 김정일 정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5·30 담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 3분의 2 이상을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인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기도 한다"며 "시장경제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의 화해 국면에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양 교수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대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며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철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 실체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재계가 남북 협력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 상황에서 기획된 게 아니라 지난 1월쯤 기획된 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북한과 관련한 현 시점에서는 지나친 기대감 표현이나 지나친 의구심, 의심의 표현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인터넷방송 '연령별 등급제' 도입 시급

15세 이용가인 '베틀그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방송을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는 것이 문제가 될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양방향 소통을 즐길 수 있는 1인 게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아프리카TV 트래픽의 65%는 게임이 차지한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 연령이 낮아지면서 연령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게임을 초등학생·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인터넷방송으로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1인 방송은 최근 장애인이나 여성을 겨냥한 사회적 약자 비하, 폭력적인 언행과 음란한 영상 등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서 별풍선이나 선물과 같은 유료 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1인 방송 역기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협의가 이뤄진 사업자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하루 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소비 패턴과 플랫폼·서비스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 다변화로 매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TV와 같이 '12세', '15세' 등 연령별 등급제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와 진행자들이 정하는 방안도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업

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관건은 연령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게임 방송을 진행해 게임을 영상화시켰을 때 도 연령 등급을 제한해야 하는가다. 방통위나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청소년불가 게임과 같이 연령 등급이 제한된 게임 진행 영상물을 보는 시청자도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영상을 접하고 중독 등 부작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정 게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 제한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적게 책정해도 200여개가 넘는 게임을 일일이 영상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美 철강관세 면제 될까... "더 지켜봐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추어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통상주무부차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만큼 선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성용 기자 grandtrust@